

벤치마크 압도적 1위는 LG… 국가대표 AI 변수는 ‘독자성’

15일까지 1차 평가 후 탈락팀 확정
‘K-엑사원’, 글로벌 톱 10 진입
중국 AI 기술 차용 두고 설왕설래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프로젝트의 첫 번째 관문인 1차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국내 인공지능(AI) 업계가 들끓고 있다. LG AI연구원의 ‘K-엑사원(EXAONE)’이 국내외 주요 지표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인 ‘독자 기술’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불거지며 오는 15일로 예정된 첫 탈락팀 선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각 기업이 공개한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LG AI연구원의 K-엑사원은 전체 13개 공통 벤치마크 테스트 항목 중 10개에서 1위를 차지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과시했다. 종합 평균 점수 72점을 기록한 K-엑사원은 중국 알리바바의 ‘큐원3’와 미국 오픈AI의 ‘GPT-OSS’를 넘어서는 성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성능 평가 기관인 아티피셜어널리시스의 인

국가대표 AI 5종 성능(벤치마크) 비교	NAVER Cloud 하이퍼클로바X시드싱크	upstage 솔라오픈	SK telecom 에이닷엑스케이원	NCAI 배기	LG AI연구원 케이엑사원
전문지식(MMLU-PRO)		80.4점	81.5점	71점	83.8점
과학 추론 능력(GPQA-Diamond)		68.1	74	53.2	79.1
전문지식(HLE)		10.5	7.2	5.9	13.6
코딩 능력(LiveCodeBench V6)		74.2	75.8		80.7
지시 수행 능력(IFEval)		88	80.4	86	89.7
에이전트 능력(타우스케일텔레콤)	65.1점	55.6	58.1		73.5
한국 전문 지식(KMMLU-PRO)		64	68.1	58.4	67.3
한국어 이해(KoBALT)	50.6	44.3	48.8	47.5	61.8
한국 문화(CLICK)	75.2	78.9	84.9	75.5	83.9

자료/각사

텔리전스 지수에서 오픈 웨이트 모델 기준 세계 7위에 올랐다. 이는 한국 모델 중 유일하게 글로벌 톱10에 진입한 성과로, 데이터 양에만 의존하지 않고 추론 속도를 150% 높이는 멀티 토큰 예측(MTP) 기술과 독자적인 강화학습 알고리즘 ‘아가포(AGAPO)’ 등을 적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한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성능 면에서는 LG가 앞서갔으나 다른 기업들도 특정 지표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SK텔레콤의 ‘에

이닷엑스케이원(A.X K1)’은 5190억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초거대 모델로서 고난도 한국어 평가인 ‘KMMLU-Pro’에서 68.1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모델의 개방성 측면에서도 아파치 2.0과 MIT 라이선스를 각각 채택한 SK텔레콤과 NC AI가 상업적 이용과 수정 배포 면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이번 평가의 최대 변수는 기술적 수치가 아닌 ‘독자성’ 논란이다.

네이버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SK텔레콤 등이 중국의 AI 기술을 일부 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프로젝트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시선은 중국 지푸(Zhipu) AI나 알리바바의 모듈 및 추론 코드를 가져다 쓴 것을 과연 국산 ‘독자 모델’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쏠려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 안내서에는 해외 모델의 파인튜닝을 통한 파생형 모델은 독자 개발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조항이 존재한다.

업스테이지와 SK텔레콤은 차용된 코드가 오픈소스 설계도일 뿐 자체 기술력과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네이버클라우드의 경우 알리바바의 비전 인코더와 가중치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핵심 모듈을 외부 기술에 의존할 경우 향후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서비스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라이선스 종속’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15일까지 1차 평가를 마무리하고 첫 탈락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현재 모호한 ‘프롬스크래치(처음부터 자체 기술로 개발)’의 기준을 더욱 세부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인 벤치마크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이라며 “이번 1차 평가의 탈락자 선정은 단순한 기술력 경쟁을 넘어 대한민국 AI 주권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정부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I 채팅으로 서류 발급·시설 예약까지”

네이버 내달 ‘AI 국민비서’ 선보일
별도 앱 설치없이 접근·편의성 높여

오는 2월부터는 급하게 민원 서류가 필요하거나 공공 시설을 이용하려 할 때, 별도의 공공 앱을 설치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의 인공지능(AI)이 채팅창의 대화만으로 서류 발급과 공공 시설 예약까지 처리하는 기술을 제공해 공공 서비스 혁신이 본격화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오는 2월 ‘AI 국민비서’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다. AI 국민비서는 네이버클라우드가 개발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한 AI 에이전트를 공공 서비스에 연계한 것이 핵심이다. 단순 정보 안내를 넘어 실제 행정 업무

처리까지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AI 국민비서는 국민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직접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일상적인 대화만으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네이버 웹이나 앱에서 제공되는 ‘네이버 톡톡’ 채널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 이전처럼 개별 공공 앱을 내려받거나 로그인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이용자는 채팅창에 “주민등록등본 발급해 줘”라고 입력하는 것만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공유누리’와도 연동돼, 인근 공공 테니스장이나 회의실 예약 같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 역시 몇 차례 대화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 행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시간과 절차 부담

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 같은 기능을 단순 검색이나 상담 수준이 아닌, 사용자의 요청을 실제 결과까지 연결하는 ‘행동형 AI’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정보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증명서 발급이나 예약 완료 등 실질적인 행정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차별점이다. 회사는 올해 상반기 중 기능을 고도화한 ‘AI 탭 통합 에이전트’ 형태로 서비스를 확장 제공할 계획이다.

AI 도입은 시민 편의 향상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업무 현장으로도 확대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부산광역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이퍼클로바X 기반 행정 AI 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 지자체 행정 전반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사례다.

부산시 공무원들은 협업 도구 ‘네이

버웍스’에 탑재된 ‘AI 부기 주무관’을 활용하게 된다. 이 AI는 부산시의 행정 규정과 업무 사례, 지역 정보 등 약 16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해 민원 대응, 규정 질의, 반복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법령과 지침 검색은 물론 정책 보고서와 문서 초안 작성 등 총 22종의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국정자원 화재 사고 당시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며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생성형 AI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효율성을 입증한 사례로 꼽힌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러한 공공 행정 AI 도입을 ‘모두의 AI’ 전략의 핵심 사례로 보고 있다. 자국의 언어와 행정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독자적인 AI 모델을 확보해야 한다는 ‘소버린 주권 AI’ 전략에 기반한 행보라는 설명이다. 해외 빅테크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 영역에 적합한 AI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성도 담겼다. /최빛나 기자 vitna@



LG유플러스가 새해를 맞아 대표 멤버십 프로그램 ‘유플투블’의 혜택을 강화했다. /LG유플러스

“배민클럽 2개월 무료”
LGU+, 멤버십 강화
‘유플투블데이’ 통해 혜택 확대

LG유플러스가 새해를 맞아 대표 멤버십 프로그램 ‘유플투블’ 혜택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LG유플러스 고객은 13일부터 시작되는 ‘유플투블데이’를 통해 통합앱 ‘유플러스원(U+one)’에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편에서는 배달 혜택을 강화했다. 통신사 최초로 배달의민족 구독 서비스인 ‘배민클럽 2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며, 멤버십 VIP 등급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15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기존 배달의민족 할인 혜택도 이어진다. 13일에는 ‘배달의민족×멕시카나 치킨’ 9000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이 밖에 15일 다운타운 25% 할인, 19일 오투기물 30% 할인, 20일 CGV 유플투블 세트 무료, 21일 스타벅스 별리워드 8개 제공, 22일 공차 30% 할인, 23일 사조물 30% 할인 등 식음료 관련 혜택이 마련됐다.

겨울방학을 맞아 체험형 혜택도 추가했다. 15일 비발디파크 리프트 50% 할인, 19~23일 판타와 지노의 공통탐험전 30% 할인, 21일 아쿠아필드 40% 할인, 22일 주름주름 입장권 35% 할인 등이 제공된다. /김서현 기자

이노시물레이션, ‘E-모빌리티 검증’ 수주

7억 규모… 실물 검증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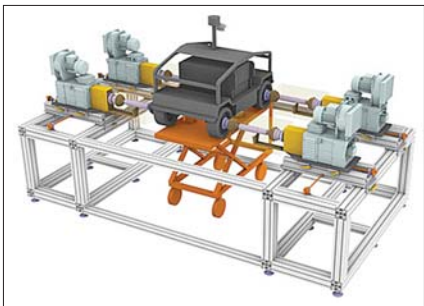
이노시물레이션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주관하는 ‘E-모빌리티 성능 시험 장비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주 규모는 약 7억 원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노시물레이션은 기존 소프트웨어 중심의 가상 시물레이션을 넘어, 인공지능(AI)이 실제 물리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자율주행 로봇과 전동 이동수단 등 이른바 ‘피지컬 AI’

적용 분야에서 실물 검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AI 산업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학습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직접 작동하는 피지컬 AI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자율배송 로봇, 전동 킥보드, 무인 이동체 등 E-모빌리티 분야는 이러한 흐름이 가장 빠르게 적용되는 영역으로 꼽힌다.

다만, 시물레이션 환경에서 학습된 AI를 실제 도로와 물리 환경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오차와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과 직결되는 검증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노시물레이션의 E-모빌리티 성능시험 장비. /이노시물레이션

이번에 구축되는 성능 시험 장비는 실험실 환경에서 실제 주행과 유사한 물리적 부하를 재현해, 자율주행 로봇과 전동 이동수단의 하드웨어 성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구동 모터 반응, 조향 정밀도, 출력 및 토크 제어 등 주요 물리 요소를 정량적으

로 측정·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실도로 테스트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고 사고 위험이 수반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장비는 정밀한 가상 시나리오와 하드웨어 연동 시험을 통해 이러한 제약을 줄이고, 개발 효율성과 상용화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노시물레이션은 그동안 국방·항공 분야에서 하드웨어 연동 시물레이션(HILs) 기술을 축적해 왔으며, 이번 수주를 계기로 해당 기술을 자율주행 로봇과 민간 모빌리티 영역으로 확장하게 됐다. KTL과는 과거 실의배송로봇 시물레이션 협업에 이어, 실물 성능 시험 장비 구축까지 협력 범위를 넓혔다. /김서현 기자